

【 P2-10 】

울산지역 남녀 대학생들의 음주행태 및 음주 후 임상증상에 관한 연구

홍순명, 양정아, 정순임, 조지예
울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

Comparison of drinking behaviors and symptoms after drinking alcohol of the female and male College students in Ulsan Metropolitan City

Soon-Myung Hong, Jung-a Yang, Soon-im Jung, Jee-ye Cho
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, University of Ulsan

청소년기에서 성인기의 시작인 대학생들의 음주 문화는 차후 사회경제인으로서의 사회의 전반적인 음주문화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음주문화실태의 반영을 보여준다. 이에 본 연구는 울산지역 대학생 300명(남자 151명, 여자 149명)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음주시작 연령, 음주동기, 음주량 및 빈도, 음주형태 및 음주 후 임상증상 변화를 조사하였다.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18세에서 38세이었으며, 첫 음주 경험은 '고등학교' 86%(남 84.1%, 여 87.9%)가 가장 높았고 '중학교이하' 순이었으며, 처음 술을 마신 이유로는 '명절' 68.7%(남 64.2%, 여 73.2%)로 가장 높았으며 'MT 및 수학여행', '호기심' 등의 순이었다. 음주빈도는 남학생은 '주 1회 이상' 44.4%, 그리고 여학생은 '월2~3회' 39.6%로 가장 높았다. 평균 1회 음주량은 남학생은 맥주로 '3~4병'이 37.1%, 그리고 여학생은 '1~2병'이 40.9%, 소주로는 남학생이 '1병'이 41.1%, 여학생은 38.3%로 가장 높았다. 대학생들이 주로 술을 마시는 이유로는 '기념일' 41%, '사람들과 사교' 34%, '할 일이 없어서' 13.7%, '스트레스 해소' 6.0%, '습관적으로' 3.3% 등의 순이었다. 마시는 술의 종류로는 맥주 50.3%, 소주 33%, 양주 및 칵테일 11.3%, 포도주나 과일주 4.3%, 막걸리 1.0%순이었다. 평균 1회 음주량은 맥주 '1~2병' 31.3%, '3~4병' 30%, '1병 이하' 26.7%, '5~6병' 7%, 그 이상 5%이며, 소주는 '1병' 33.3%, '반병' 29.7%, '1~2잔' 20.7%, '2병' 10%, 그 이상 6.3%이었다. 첫 음주 경험 시기는 남녀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, 처음 술을 마신 이유($p<0.05$), 주로 술을 마시는 이유($p<0.001$), 음주빈도($p<0.001$), 술의 종류($p<0.001$) 및 1회 음주량($p<0.001$)에서 남녀의 유의적인 차이를 볼 수 있었다. 음주 권유시 '그냥 마신다'가 43.3%(남 51.7%, 여 34.9%)로 가장 높았고 '정중히 거절한다', '먹는 척하고 버린다', '음료수로 대처' 등이었다. 술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'분위기에 이끌려서' 51.3%(남 49.0%, 여 53.7%)와 '권하는 사람의 기분 상할까봐', '사교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', '끈질기게 권유해서' 등으로 조사되었다. 음주 직후의 임상증상의 변화는 졸음 72.3%(남 66.2%, 여 78.5%)로 가장 높았으며, 피곤함, 갈증, 어지러움, 피부홍조, 두통, 횡설수설, 구토, 호흡곤란 등의 순으로 경험하고 있었다. 또한 음주 다음날 증상으로는 피곤함 70.7%(남 67.5%, 여 73.8%)로 가장 높았으며, 갈증, 두통, 졸음, 어지러움, 구토, 피부홍조, 호흡곤란 등의 순으로 나타내었으며, 갈증과 어지러움은 음주 직후보다 더 느끼고 있었다. 음주 후 결석한 경험이 45%(남 49.0%, 여 40.0%)로 나타나 학업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상의 결과를 보면 대학생들의 음주빈도가 높고 음

주량이 많으며, 음주 권유시 분위기에 이끌려 거절하지 못하는 음주행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음주 후의 졸음이나 피곤함 등의 건강상의 임상증상이 많이 나타나며, 결석의 경험이 있으므로 대학생들에게 음주에 대한 올바른 영양교육이 시급히 필요하다.